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요인

* 본 내용은 다이와종합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분석리포트 : 「무역수지 적자의 요인」 (2014년 3월 10-12)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임

http://www.dir.co.jp/research/report/japan/sothers/20140310_008307.pdf

-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은 ①원전중단으로 인한 에너지수입의 증가, ②공동화로 인한 수출감소·수입증가, ③엔저의 수출물량 증대효과 부진에 의한 수출증가세 둔화 등임
- 이 가운데 ③의 요인은 시간이 지나면 수출물량 증대효과가 나타나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①과 ②에 대한 대응책으로, 에너지수입 절감형 대체에너지 개발과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

▷ 2013년 일본의 무역수지는 11.5조엔 적자로 과거 최대 적자폭을 기록

▷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을 ①원전중단, ②공동화, ③엔저효과·J커브효과 등으로 나누어 분석

1. 원전 중단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

□ 광물성연료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

- 원전이 중단되는 경우 화력발전으로 대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광물성연료의 수입물량지수를 광공업생산지수와 화력발전의존도를 사용하여 추계
-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원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에너지수입량이 10%정도 적은 수준에서 추이했을 가능성이 높음

□ LNG의 수입가격에 미치는 영향

- 원전 중단이 에너지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수입물량 증가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가격도 상승할 수 있음

- LNG가격이 장기계약에서는 원유가격에 연동되어 결정되나, 스팟계약에서는 수급을 반영하는 형태로 가격이 변동되기 쉬움
-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LNG 소비량이 급증함에 따라 장기계약만으로는 LNG 조달이 부족했기 때문에 스팟계약으로 조달을 늘릴 수밖에 없었던 결과, LNG의 스팟조달 가격이 상승
- 다이와중합연구소는 만일 원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LNG조달가격이 20-30% 낮아졌을 것이라고 추정

□ 4조엔 정도의 에너지 수입증가

- 원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광물성연료의 수입량 감소(10%)와 LNG 조달가격의 하락(20-30%)을 통해서 4조엔 정도의 에너지수입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추정

2. 공동화 진행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

□ 기업의 해외진출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해외진출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①수출대체효과, ②수입전환효과, ③수출유발효과, ④역수입효과로 집약
- 이중 ①과 ②는 무역수지의 적자요인, ③과 ④는 무역수지의 흑자요인으로 작용
- 일반적으로는 수출대체효과를 중시, 기업의 해외진출이 수출 감소를 촉진시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고 하는 접근이 많으나, 수출대체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수출전환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무역수지에 대한 악영향은 어느 정도 상쇄되기 마련
- 오히려 최근 일본의 무역수지의 적자와 관련해서는 ③과 ④의 요인이 중요
- 과거에는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수출유발효과가 상당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해외진출이 확대되더라도 수출대체효과에 의한 수출 감소는 한정적이었음
- 그러나 현재는 유발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동시에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의 역수입이 증가

- 유발수출의 감소는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던 제품을 해외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의 조달조차도 해외에서 하고 있음을 시사
- 역수입의 증가는 기업이 코스트 경쟁력을 추구하여 내수용 제품조차도 해외에서 생산한데 따른 것임
- 이와 같이 최근 일본의 유발수출은 감소하고 역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은 단순한 해외진출이라기보다는 공동화를 반영

□ 일본의 유발수출, 역수입 현황

- 해외현지법인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유발수출액(해외현지법인의 일본조달액)의 비율은 2008년경까지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으나, 리먼 쇼크를 계기로 급격히 저하
- 역수입도 비율도 리먼쇼크 이후 상승

□ 공동화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확대 효과 7조엔

- 이와 같은 변화가 수출입금액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기 위해, 유발수출과 역수입이 해외현지법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리먼쇼크 이전 평균적인 수준으로 추이 했던 케이스(공동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케이스)와 현재 수준대로 추이했던 케이스(기본 케이스)에서 유발수출과 역수입액이 변화 추이를 시산
-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수출유발효과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수출이 5조엔 정도 감소, 역수입 효과가 늘어남으로써 수입이 2조엔 정도 증가
- 수출대체효과, 수입전환효과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공동화 효과는 약 5조엔의 수출 감소와 약 2조엔의 수입증가를 통하여 7조엔 정도의 무역수지적자 확대 효과를 발생
- 이 같은 공동화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무역수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공동화 진행 추이가 멈추지 않는 경우, 앞으로 5년간 무역수지 적자폭은 2.5조엔 정도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
- 또한 공동화가 한층 진행되는 경우, 5년간 무역적자가 7조엔 정도 확대, 이 케이스에서는 경상수지도 적자로 될 가능성이 커짐

- 한편, 공동화 움직임이 멈추게 되는 경우, 무역수지적자 폭은 5년간 3조엔 정도 축소될 가능성도 있음

3. 엔저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

□ 엔저에 의한 수출증가 메커니즘

- 2013년 4분기 실질수출성장율이 전기비 0.4%로 과거의 엔저국면에 비하여 완만
- 엔저에 의해 수출물량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수출물가가 하락할 필요가 있음
 - 외화표시가격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엔저가 되더라도 수출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엔환산 수출가격은 상승하고 수출기업의 수익이 증가
 - 수익이 개선되면 수출가격을 인하함으로써 경쟁상대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면 수출시장점유를 높여 수출물량을 늘릴 수 있음

□ J커브효과(엔저의 무역수지 효과)

- 엔저가 되는 경우 먼저, 엔화 기준으로 본 수출물가와 수입물가가 상승
 - 이는 외화표시 수출에서는 외화표시 수출가격을 고정시키는 경우 엔환산 수출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임
- 일본의 경우, 수출에서 차지하는 외화표시 비율이 60%정도로 수입에서 차지하는 외화표시 비율 80%에 비하여 낮으며 이 때문에 엔저 시 수출물가상승폭이 수입물가상승폭에 비하여 적음
- 결과적으로, 엔저에 의한 수출금액보다도 수입금액의 증가폭이 크기 때문에 엔저국면의 초기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
- 그러나 서서히 달러표시 수출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수출물량이 증가함으로써 무역수지적자 확대가 멈추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기 시작

□ 2013년 무역수지적자 중 3조엔 정도가 엔저에 의한 것

- 일본의 경우 J커브효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엔저 이후 1년 정도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다가, 수출물량 증대효과에 의해 적자폭이 축소로 반전, 엔저 이전의 적자폭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
- 현재의 엔저국면은 2012년 12월부터 시작, 2013년까지 1년이 경과, 이 기간 중 무역수지의 변화폭을 다음과 같이 분해할 수 있음
 - ①환율요인을 제외한 수출가격 하락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1.6조엔 정도 확대, 수출물량 감소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1조엔 확대되어 합계 2.6조엔 확대
 - ②수입가격 하락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1.2조엔 축소, 수입물량 감소에 의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0.5조엔 축소되어 합계 1.7조엔 축소
 - 따라서 ①과 ②의 합계, 즉 0.9조엔 분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가 환율요인을 제외한 수출입가격 하락과 수출입물량 감소에 의한 것임
 - 2012-2013년 기간 중 4조엔 이상의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중 0.9조엔을 제외한 나머지 3조엔 정도가 엔저요인에 의한 부분임

4. 시사점

- 일본의 무역수지 적자요인은 ①원전중단으로 인한 에너지수입의 증가, ②공동화로 인한 수출감소·수입증가, ③엔저의 수출수량증대효과 부진에 의한 수출증가세 미약 등 3가지로 구분
 - 다이와중합연구소에 따르면 ①에 의한 부분이 4조엔 정도, ②에 의한 부분이 7조엔, ③에 의한 부분이 3조엔 정도
- 이중 ③의 요인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출수량증대효과가 확대됨으로써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①과 ②의 부분이 문제임
- 일본경제가 무역적자요인을 해소 내지는 줄이기 위해서는 ①에 대해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던가, 아니면 광물성연료 수입을 늘리지 않아도 되는 다른 대체에너지를 확보해야 함
 - ②에 대해서는 완제품과 수출용뿐만 아니라 내수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까지도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공동화현상에 기인한 것인 만큼,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길 외에는 다른 정책대안이 없음을 시사 -끝-